

인상주의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개발

이유림, 방예원, 김소연, 이혜린, 박상혁, 권수현, 노지연
화성의과학대학교 스타일테크학과
e-mail: rim@hsmu.ac.kr

The Development of Body Art Design Based on the pictorial Characteristics of impressionism

Yu-Rim Lee, Ye-Won Bang, So-Yeon Kim, Hye-Rin Lee,
Sang-Hyuk Park, Soo-Hyun Kim, Ji-Yeon Noh
Dept. of STYLETECH, Hwasung Medi-Scienc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인상주의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활용한 연구 방법 및 범위는 인상주의 및 바디아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가들의 회화적 특성들에 대한 제반 조사를 수행 및 앞서 고찰한 그 특성을 토대로 바디아트 디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상주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개발은 클로드 모네, 빈센트 반고흐,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레오아프레모브 등 인상주의 작가의 회화적 특성을 토대로 6가지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바디아트디자인은 인상주의의 인상주의 작가들의 회화에서 표출되는 이미지, 색상, 구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설정한 작품 주제에 적합하도록 구성, 색감, 표현방법, 오브제 적용 등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주어 디자인되었다.

1. 서론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운동의 하나로, 전통적인 회화 기법에서 벗어나 빛과 함께 변화하는 색채의 움직임 속에서 색채나 색조, 질감에 변화를 주어 표현하고자 특성을 함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상주의의 회화적인 특성을 활용한 바디 아트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회화와 바디아트의 융합적 접근 기반을 통한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뷰티 학문 분야에서 보다 다채로운 예술 분야의 표현 방법에 기반을 둔 바디아트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상주의 및 바디 아트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인상주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개발을 위해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앞서 고찰한 인상주의의 작가별 회화적인 특성을 토대로 총 6개의 바디아트디자인을 제시한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상주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 디자인 개발은 클로드 모네, 빈센트 반고흐,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레오아프레모브 등 인상주의 작가의 회화적 특성을 토대로 6가지의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그림 1]은 클로드 모네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사계절”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자연을 페인팅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계절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풍경을 짧게 끊어지는 붓터치와 흘날리는 붓터치를 활용하여 시선의 순간 또는 시선의 흐름에 대한 장면의 효과를 자아내고자 하였다. 바디 페인팅 디자인 중심의 다리는 다양한 시선들을 연결해주는 기억의 소통을 위한 표현으로, 빛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그림자의 변화를 통하여 사계절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 2]는 클로드 모네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책 읽는 여인”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풍경을 붓이 아닌, 스펀지의 두드림 효과를 통하여 자연의 대상이 구별되기보다 빛에 의해 이어져 있는 효과를 자아내고자 하였다. 바디페인팅의 중심에 있는 여인의 형상은 붓의 터치감에서 오는 부드러움을 활용하여 빛에 용해된 흐릿한 형상을 표현하고자 하

였으며, 드레스의 오브제를 부착하여 자연과 대비되는 사물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림 3]은 빈센트 반고흐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고흐의 어느 날”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반고흐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는 어두운 색채감에서 벗어나 보다 밝은 색감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바디페인팅 중심의 인물에서 보이는 음영 효과는 짧은 붓터치를 적용하여 시간적 변화에 따른 빛의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달의 직접적인 형태와 별에서 자아내는 빛의 외형적인 테두리, 저녁에 떠다니는 구름의 소용돌이 등 자연의 모든 것이 인간과 함께 움직이는 듯한 서정성과 신비감을 자아내고자 하였다.

[그림 4]는 빈센트 반고흐와 이중섭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소가 빛나는 밤”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소의 외형적 형태에서 나타내는 근육을 보다 강인한 감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선형의 짧은 붓터치를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소의 내면적인 변화는 무채색 계열에서 황토색으로 변화하는 그라데이션 기법과 바디 하단에 소용돌이치는 듯한 형상을 적용하여 소의 내면과 외면의 연결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림 5]는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By the water”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짧은 붓 터치와 옐로우와 블루계열의 보색의 대비로 자연의 사물에서 나타나는 빛과 움직임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사물의 선을 강조하는 고전적인 페인팅과 색상의 번짐을 통한 인상주의의 효과를 조합하여 현실적인 시간감과 공간감이 초월되는 순간의 영원성과 지속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6]는 레오니드 아프레모브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빛길 뒤의 불꽃” 주제의 바디페인팅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작품은 레오니드 아프레모브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레드와 블루 계열의 색상 및 유화물감을 두껍게 칠하여 페인팅을 하는 임파스토 기법을 적용하여 색상과 빛의 대비에서 오는 화려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붓의 부드러움 대신 팔레트 나이프의 의 투박함을 활용한 페인팅을 통하여 전체적인 색상의 형태와 질감적 효과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팔레트 나이프의 세로날을 활용하여 색상의 섬세한 표현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1] 클로드모네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2] 클로드모네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3] 빈센트 반고흐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4] 빈센트 반고흐와 이중섭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5]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 [그림 6] 레오니드 아프레모브의 회화적 특성을 활용한 바디아트디자인